시네필전주 상영작 · 게스트 시네필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데이비드 메리엇' 전주 찾아 영화 세 편 큐레이팅 · 소개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는 시네필전주 상영작 18편과 올해의 게스트 시네필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첫선을 보인 시네필전주의 미니섹션 '게스트 시네필'은 영화 복원 및 보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벨라 타르 감독의 전설적인 명작 〈사탄탱고〉(1994)를 복원한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영화 배급 및 복원 레이블 '아르벨로스 필름'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메리엇'이 캐나다의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 세 편을 큐레이팅하고, 직접 소개하기 위해 전주를 찾는다.

데이비드 메리엇이 선정한 세 편의 영화는 최근 복원작업을 마치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감독이 되는데 영향을 끼친 작품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와 〈볼륨을 높여라〉를 만든 감독의 데뷔작이지만 거의 알려진 바 없는 〈고무로 만든 총〉, 마지막으로 가혹한 현실과 지나간 시대에 대한 다큐멘터리이지만 오늘날 여전히 메아리처럼 말해지는 사회문제를 다룬 〈데이비 스트리트의 창녀들〉까지 캐나다의 1960, 1970, 1980년대 희귀 작업을 한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시네필전주를 찾는 게스트 중에는 하버드필름아카이브(HFA)의 헤이든 게스트 원장도 있다. 영화제의 좋은 친구이자 조력자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험영화를 필름으로 소개한다. 조던 벨슨 감독의 〈매혹〉, 로버트 비버스 감독의 〈작업 완료〉는 하버드필름아카이브(HFA)가 소장한 35mm 필름으로, 어니 기어 감독의 〈사이드/워크/셔틀〉은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소장한 35mm 필름으로 상영된다. 여기에, 일본의 학자이자 평론가인 히라사와 고가 선정한 아다치 마사오 감독의 독특한 영화 〈약칭: 연쇄살인마〉는 일본에서 복원한 4K 디지털 버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보유한 35mm 버전을 함께 공개해 관객에게 비교 관람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복원작으로는 마사 쿨리지 감독의 〈예쁜 영화는 아니야〉, 유럽 영화의 두 거장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의 〈아브라함 계곡〉, 자크 리베트의 〈미치광이 같은 사랑〉이 있다. 시대적 질문을 심도 깊게 사유하고자 선택한 영화는 빔 벤더스 감독의 〈룸 666〉으로 영화의 죽음에 대한 영화인들의 생각을 모은 다큐다. 뤼브나 플레이우스트 감독의 〈룸 999〉와 함께 더블 피처 형식으로 상영된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장뤼크 고다르, 스티븐 스필버그, 알베르 세라, 알리체 로르와커 등 화려한 출연진만큼이나 그들의 영화의 미래에 대한 명언 또한 관객들의 가슴에 깊이 남을 것이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타악연희원 아퀴

남원시민 문화향유 · 관광객 유치 '탄력'

춘향문화예술회관 · 타악연희원 아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소장 박준기)는 춘향문화예술회관과 (사)타악연희원 아퀴(대표 박종대)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협력을 통하여 공연장의 가동율 향상 및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환경조성,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국악의 발상지이자 예향의 고장인 남원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충분한 문화 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도시 남원의 특유한 성격을 부각하고자 1995년 5월에 개관한 남원의 대표 공연장이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타악 단체인 아퀴와 함께 우수레퍼토리 공연 4회, 초연 창작공연 2회, 교류공연 1회 주민 참여프로그램 1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레퍼토리 공연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헤프닝을 담은 타악콘서트라마 '비트 오브 스쿨', 얼굴이 변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자 이야기 '변검사자 탈출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며, 초연창작공연은 'LED 라이트 코스튬'을 활용해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선보일 '빛의 울림'을 진행한다.

교류공연은 영호남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하여 정선아리랑제와 임방울국악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밀양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퓨전국악예술단 연(대표 김기정)과 문화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프로그램 타악문화예술 체험은 시민들에게 공연의 재미와 타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준기 소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아퀴와 이번 공연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예향의 도시이자,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에 새로운 문화적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남원시민의 문화향유와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빛과 소리로 치유하는 명상수행법'

명사초청 상생 힐링 선포럼 전북 강연회 30일 개최

갑진년도 3월말 꽃피는 봄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대한사랑에서 주최하고 상생 선포럼 전북지회(지회장 이용전)에서 주관하는 '빛과 소리로 치유하는 명상수행법'이란 주제로 지난 2월 17일에 이어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두 번째 명사초청 상생 힐링 선포럼 강연회가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도민들이 참석 했었는데, 행사 후 지역민들이 자주 이런 행사가 있기를 요청해왔다. 이에 부응해서 행사를 매달 준비하기로 한 것.

대한사랑에 따르면, 본래 한민족의 역사는 태고부터 빛과 광명의 수행과 천제문화에서 시작되었고, 환국이래로 배달국 단군조선에 이르기 까지 신선과 제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열었던 황금시대가 있었다. 그 원형 문화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천지와 소통하는 수행 영성문화였다. 오늘날 세계의 석학자 들은 지금 인류가 맞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이후로 나눠졌다고 전한다. 전 지구촌은 지금 세계에 몰아닥친 기후변화로 이상 징후와 환경호르몬 노출로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팬데믹의 새로운 출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남기고 있다.

세계석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질병들이 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코로나에 이어 원숭이 두창이 발발했다는 소식도 있다. 바로 이때 K문화의 핵심 홍익인간 속에 한류문화가 풍류속에 녹아있는 한국인들의 고유한 수행문화속에 건강을 지키고 영성을 일깨우는 비밀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국인의 한韓문화속에 각종 다양한 의식주 · 노래 등 생활문화가 세계로 소개되는 이때 K history속에 있는 케이팝 케이 드라마를 너머 정신분야의 K healing 문화는 현대인들의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 dying) 까지 치유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 품격 있게 살다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제 봄꽃을 즐기려 찾아 산으로 들로 외부로 나서는 이때 외부 활력도 좋지만 '나 자신에게 내가 있다'는 옛 선인들의 메시지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처럼 가야 할 때이다.

'빛과 소리로 치유하는 명상수행법'이란 주제로 명상속에 궁극 빛꽃문화를 전한다. 빛꽃 수행법은 이미 지난해 서울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11주년 기념행사에서 홍익인간문화의 정수 빛꽃문화가 소개된적이 있다.

선려화 빛꽃문화는 한국인의 정신이다. 매달 우수명사를 초대진행한다는 것에 지역에 한 시민으로서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는 그 주제로 STB 상생방송 수행지도법사로 원유근 한의의학 박사가 상생힐링 선포럼 전북강연회 강사로 초대되었다.

원유근 명상수행지도법사는 STB 상생개벽뉴스에 주 법사로 출연하여 지난 한해 전국에 나가는 수행방송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할 전통수행의 정수를 전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일정에서 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은 한국문화의 원류 홍익인간의 건국정신 속의 수행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갖고 가야할 때"라며 "지난 1세기전 근대역사의 빛 동학과 독립운동사의 중심이었던 전라북도의 위상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들이 21세기의 한국문화를 주도하고 세계까지 견인해서 나아가는 건강과 정신문화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연회 참석은 희망자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무료입장이다.

/김재훈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국한지공예대전 출품작 공모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5월 12일까지 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출품작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한지공예대전은 한지공예를 통해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 분야는 △전통(지호, 지승, 색지, 지장, 지화, 부채, 수록지 등) △현대(한지조형, 의상, 닥종이인형, 한지그림, 한지부조, 한지등, 낙화 등) △문화상품 및 기타(문화상품, 민화를 응용한 한지공예, 창작한지, 응용한지 등) 등 모두 3개 부문이다.

특히 공예대전의 최고상인 대상 1인에게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 등 모두 26명에게 33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입선작 이상의 작품은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전시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처는 전당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광주, 대구, 부산 등 각 지역마다 마련돼 있으며,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 자격 제한은 없으며 출품료는 1점당 일반부는 5만원, 학생부는 4만원으로, 작품규격 기준 등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영 원장은 "전국한지공예대전은 한지공예를 사랑하고 맥을 이어온 많은 한지공예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규모 있는 행사"라며 "올해 30회를 맞이한 공모전에 전국의 많은 한지공예인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cc.or.kr) 또는 전주한지문화축제 누리집(jjhanji.or.kr)에서 확인하거나 국제한지산업대전 TF팀(063-281-1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